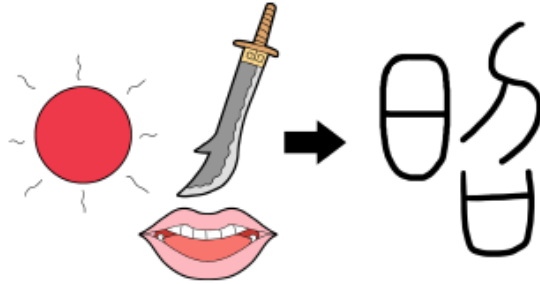


형성문자①



昭

밝을 소

昭자는 '밝다'나 '밝히다', '비추다', '나타내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昭자는 日(해 일)자와 冫(부를 소)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冫자는 '부르다'라는 뜻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발음역할만을 하고 있다. 昭자는 햇빛이 '밝게 빛나다'를 뜻하기 위해 만든 글자로 日자가 의미 역할을 하고 있다. 날이 밝아야 사물이 명확히 보인다. 그래서 昭자는 '(사물이)명확히 분별되다'라는 뜻으로도 쓰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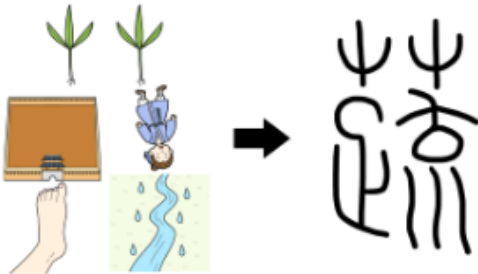
昭

소전

昭

해서

형성문자①



蔬

나물 소

蔬자는 '나물'이나 '푸성귀'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蔬자는 艹(풀 초)자와 疏(트일 소)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疏자는 아이가 물에 떠내려가는 모습을 그린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발음역할만을 하고 있다. 蔬자에서 말하는 '푸성귀'란 식용을 위해 직접 기른 채소를 뜻한다. 蔬자는 '나물'이라는 뜻을 가진 菜(나물 채)자와 함께 채소(菜蔬)라는 뜻으로 쓰인다. 예로부터 중국인들은 고기반찬을 좋아하고 나물 반찬을 하찮게 여기곤 했다. 그러다 보니 蔬자에는 '변변치 못하다'라는 뜻도 파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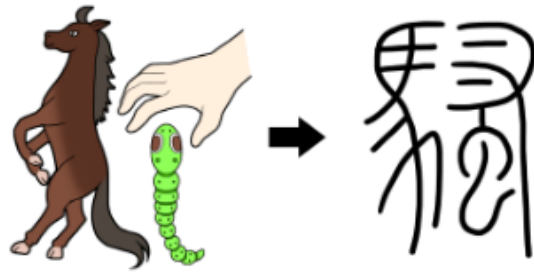
蔬

소전

蔬

해서

회의문자①



騷

떠들 소

騷자는 '떠들썩하다'나 '(말을)굵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騷자는 馬(말 마)자와 蚤(벼룩 조)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蚤자는 벌레를 손으로 잡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벼룩'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이렇게 '벼룩'이라는 뜻을 가진 蚤자에 馬자를 결합한 騷자는 몸에 달라붙은 벼룩 때문에 말이 날뛰며 소동을 피운다는 뜻이다. 참고로 '벼룩'을 뜻하는 蚤자에 手(손 수)자를 결합하면 '굵다'라는 뜻의 搔(굵을 소)자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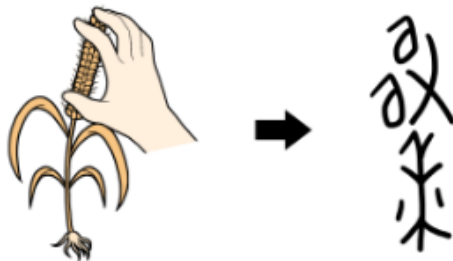
騷

소전

騷

해서

회의문자①



粟

조 속

粟자는 오곡 중의 하나인 '조'를 뜻하는 글자이다. 粟자는 米(쌀 미)자와 西(뒹을 아)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조는 강아지풀과 생김새가 비슷한 곡식이다. 중국에서는 기원전 2,700년경부터 오곡(五穀)중 하나로 '조'를 포함하고 있었으니 조는 아주 오래전부터 재배되었던 곡식이었다. 粟자는 조를 뜻하기 위해 큰 알갱이를 강조해 그려졌었다. 갑골문에서는 禾(벼 화)자 위로 큰 알갱이를 잡은 손이 𠂔 그려져 있었지만, 금문에서는 손이 사라지고 대신 큰 알갱이와 米(쌀 미)자만이 𥽿 남게 되었다. 소전에서는 이것이 西(뒹을 아)자로 표현되면서 지금의 粟자가 만들어지게 된다. 참고로 米자가 아닌 木(나무 목)자가 쓰인 것은 栗(밤나무 울)자이니 혼동되지 않아야 한다.

𥽿

갑골문

𥽿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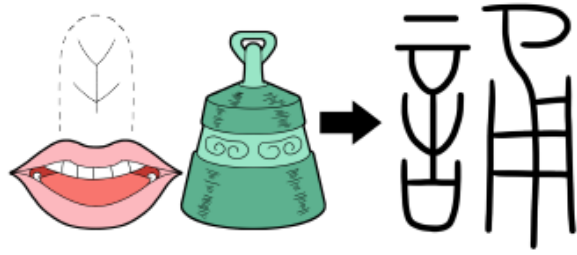
𥽿

소전

粟

해서

회의문자①



誦

월 송:

誦자는 '외우다'나 '암송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誦자는 言(말씀 언)자와 誦(길 응)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誦자는 고리가 달린 '종'을 그린 것이다. 어려운 시문이나 경전을 암송할 때는 어떠한 방법이 도움이 됐을까? 아마도 노래를 부르듯이 리듬을 타면서 외우는 방법이 도움이 됐었을 것이다. 스님들이 음률을 넣는 방법으로 불경을 외우시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니 誦자에 '종'을 그린 誦자가 쓰인 것도 음률을 맞춰가며 외운다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셈이다. 誦자에 '노래하다'라는 뜻이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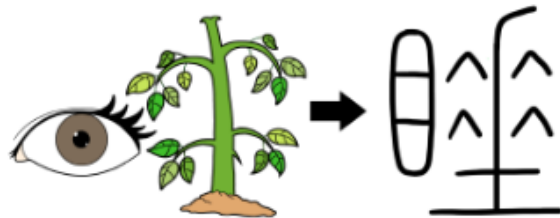
誦

소전

誦

해서

회의문자①



睡

줄음 수

睡자는 '자다'나 '졸음'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睡자는 目(눈 목)자와 垂(드리울 수)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垂자는 풀잎이 늘어져 있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드리우다'나 '늘어지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이렇게 '늘어지다'라는 뜻을 가진 垂자에 目자가 더해진 睡자는 '눈이 늘어지다' 즉 '졸음이 쏟아진다'라는 뜻으로 만들어졌다.

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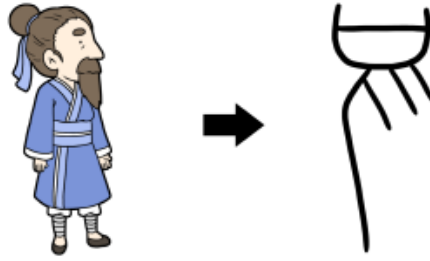
소전

睡

해서

3
-
147

회의문자①



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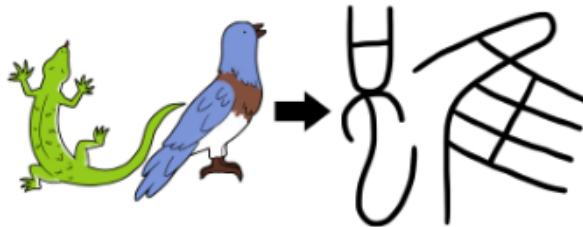
모름지기
수

須자는 '모름지기'나 '틀림없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須자는 頁(머리 혈)자와 彡(턱락 삼)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須자는 본래 '수염'을 뜻했던 글자였다. 須자의 갑골문을 보면 턱수염이 난 사람이 𠂔 그려져 있었다. 고대 중국에서 수염은 남성의 상징이면서도 성인의 증표였다. 그래서 수염이 자라기 시작하면 누구나 당연하게 수염을 기르려 했다. 須자가 '수염'이라는 뜻으로 쓰이다가 후에 '모름지기'나 '틀림없이'라는 뜻을 갖게 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남자가 수염을 기르는 것은 당연하다는 뜻이었다.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3
-
148

형성문자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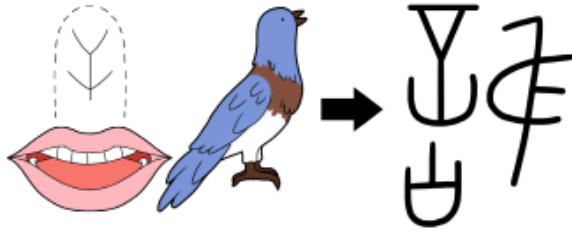
雖

비록 수

雖자는 '비록'이나 '그러나', '아무리~하여도'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雖자는 虫(도마뱀 수)자와 隹(새 추)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虫자는 도마뱀을 그린 것으로 '큰 도마뱀'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隹자는 '추→수'로의 발음역할을 할 뿐 의미는 전달하지 않는다. 雖자는 본래 도마뱀의 일종을 뜻하기 위해 만든 글자였다. 그러나 만들어진 이후 쓰임이 별로 없다가 후에 '비록'이나 '아무리', '그러나'라는 뜻을 표현하는 글자로 활용되고 있다. 雖자는 우리말에서의 쓰임은 적지만 현대 중국어에서는 '그러나', '비록~하여도'라는 뜻으로 쓰인다.

금문	소전	해서

형성문자①



誰

누구 수

誰자는 '누구'나 '무엇'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誰자는 言(말씀 언)자와 隹(새 추)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隹자는 꼬리가 짧은 새를 그린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추→수'로의 발음역할만을 하고 있다. 誰자에 대한 어원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隹자가 꼬리가 짧은 새를 그린 것이기 때문에 誰자는 말을 짧게 하는 의문형으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정확한 어원은 아니다. 그러니 誰자는 단순히 '누구'나 '무엇'이라는 뜻을 표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글자로 이해해야 한다. 다행히도 우리말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는다.

誰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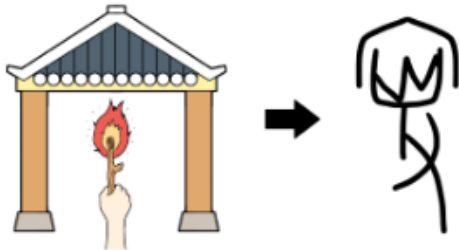
誰

소전

誰

해서

회의문자①



搜

찾을 수

搜자는 '찾다'나 '뒤지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搜자는 手(손 수)자와 叟(늙은이 수)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지금의 叟자는 '늙은이'라는 뜻을 가지고는 있지만, 이전에는 '찾다'라는 뜻으로 쓰였었다. 叟자의 갑골문을 보면 집안에 횃불을 들고 있는 叟(늙은이)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어두운 집안에 들어가 무언가를 찾고 있다는 뜻을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후에 叟자가 '늙은이'라는 뜻으로 가차(假借)되면서 여기에 手자를 더한 搜자가 '찾다'라는 뜻을 대신하게 되었다.

搜

갑골문

搜

소전

搜

해서